

○ 인물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림책을 읽어 봅시다.

- 인물의 마음을 생각하며 「내 마음을 보여 줄까?」를 읽어 보아요.



블록으로 멋진 성을 만드는데,
민호가 달려들어 **깜짝** 놀랐어.
내 마음이 찌지직, 번개처럼 찌지직!



내가 만든 성이 와장창 무너졌어.
민호한테 너무 **화가** 나.
내 마음이 쿠루루 쿵쿵,
화산처럼 쿠루루 쿵쿵!





민호가 지윤이랑만 놀아.
혼자 노니까 재미없고 심심해.
내 마음이 주르륵, 빗방울처럼 주르륵!



내가 미안하다고 하니까 민호도 미안하대.
민호랑 화해하니까 후련해.
내 마음이 살랑살랑, 바람처럼 살랑살랑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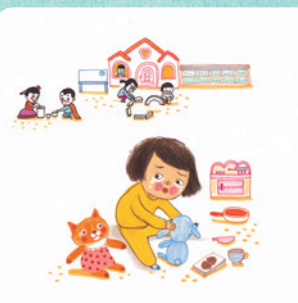
- 민아에게 일어난 일을 순서대로 말해 보아요.



블록으로 멋진 성을 만드는데
민호가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.



블록으로 만든 성이 무너졌습니다.
민호에게 화를 냈습니다.



민호가 지윤이랑만 놀았습니다.



민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.
민호와 화해했습니다.

- 인물의 모습과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보고, 보기에서 인물의 마음을 찾아 써 보아요.



보기

놀란 마음 화난 마음 속상한 마음 후련한 마음

모습



마음을 나타내는 말

깜짝 놀랐어.

마음



너무 화가 나.



재미없고 심심해.



후련해.



글 속 상황에 따라 인물이 느끼는 기분을 ‘인물의 마음’이라고 해요.

- 인물의 마음에 알맞은 그림을 연결해 보아요.



쿠루루 쿵쿵



찌지직 찌지직



살랑살랑



주르륵